

新儒學派의 節義思想

成 均 館 大
柳 正 東

1

節義는 節介와 義理를 意味한다. 節介는 主로 夫婦間에, 義理는 主로 君臣間에, 孝道는 主로 父子間에 지켜야 할 道理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므로 孝子, 烈女, 忠臣은 이 나라의 綱常을 지켜온 模範人物들로 稱頌되어 왔다.

宋代의 儒學을 新儒學이라고 할 때 安珣(1243~1306)이 忠烈王 15年(1289)에 朱子全書를 導入한¹⁾ 以來로 本邦新儒이 始作되었 으며 孔孟의 道義實踐은 오히려 元보다도 앞서고 있었다고²⁾ 한다. 鄭夢周(1337~1392)는 朱子家禮를 본떠서 家廟를 세우고 先祀를 받들게 하였으며³⁾ 한편 東方理學의 祖로 推戴되었고 金宏弼(1454~1504), 趙光祖(1482~1519)로 繼承되어 그 最高峯을 이루었다.⁴⁾ 대개 始源을 鄭夢周로 잡고 吉再(1353~1419)는

註 1) 元에서는 忠烈王 15年(元世祖의 至元 26年)에 高麗儒學提學司를 두었음(高麗時代史, p. 843, 金庠基著, 東國文化社, 1961).

2) 高麗小國也, 匠工奕技皆勝漢人, 至於儒人皆通經書, 學孔孟, 漢人惟務課賦吟詩將向用焉(元史趙良弼傳, 全上 9682 所引).

3) 同上, p. 816.

4) 嘗言吾東方理學以鄭圃隱爲祖而金寒暄趙靜庵爲首, 但此三先生著述無徵, 今不可考, 其所學之深, 近見晦齋集, 其所學之正, 所得之深殆近世爲最也.(退溪全書下, 言行錄, p. 717 大東文化研究院發行, 東國文化社出版, 1958).

鄭夢周에서, 金叔滋(1389 ~ 1456)는 吉再에서, 金宗直(1431 ~ 1492)은 金叔滋에서, 金宏弼은 金宗直에서, 趙光祖는 金宏弼에서 統을 이은 것으로⁵⁾ 생각되는데 亦是 麗朝의 圃隱과 朝鮮朝의 寒暄堂, 靜庵은 道學의 主要人物⁶⁾로 理解되고 있다.

玄相允氏는 그의 朝鮮儒學史에서 死六臣과 生六臣을 中心으로 節義問題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起點으로 하여 節義思想을 살펴보고자 한다.

2

高麗朝와 朝鮮朝의 文化를 比較할때 우선 儒佛共存의 時期와 儒教獨存의 時期로 區分된다. 그러면서 叔姪間에 政權授受가 兩朝에 다 있었건만은 어찌하여 端宗때에만 復位謀議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疑心을 갖게 된다.

麗末鮮初의 政治變革期에서 吉再(1353 ~ 1419)는 孝로써 保命을 하였고 李穡(1328 ~ 1396)은 麗亡後 出仕하지 않은 채 驪江에서 命을 못다 했으며 鄭夢周(1337 ~ 1392)는 李芳遠의 策勳

5) 趙光祖之學正其所傳者有自來矣, 自少慨然有求道之志受業於金宏弼, 宏弼學於金宗直, 宗直之學傳於其父司藝叔滋, 叔滋之學傳於高麗吉再, 吉再之學得於鄭夢周之門, 夢周之學實爲吾東方之祖則其學之淵源類此. (冶隱言行拾遺, 卷中, 大學生疏語. p.498. 高麗名賢集 4. 大東文化研究院, 1973).

6) 栗谷又曰我國理學無傳矣, 前朝鄭夢周始發其端, 而規矩不精. 我朝金宏弼接其緒, 而猶未大備, 及趙光祖倡道, 學者翕然推尊之. 今之有性理學者, 光祖之力也. (石潭日記, 朝鮮儒學史 p.56, 玄相允 所引)

으로 趙英珪 一黨에게, 李崇仁(1349~1392)은 鄭道傳의 心腹人인 黃居正에게 죽음을 當하였다. 金宏弼은 戊午士禍(1498)때 金宗直 一派로 몰려서 熙川順天에 流配되었다가 甲子士禍(1504)때 犧牲되었고 趙光祖는 綾州로 귀양을 갔다가 己卯士禍(1519)때 賜死되었다.

端宗의 復位를 圖謀하던 成三問(1418~1456), 朴彭年(1417~1456), 河緯地(1387~1456), 李愷(?~1456), 俞應孚(?~1456), 柳誠源(?~1456)은 世祖에게 決死로 抗拒하였고 金時習(1435~1493), 元昊(?~?), 李孟專(?~?), 趙旅(1420~1489), 成弼壽(?~1456), 南孝溫(1454~1492)은 隱居로 終生한 사람들이다. 儒學教育이 高句麗 小獸林王 2年부터(372) 始作되었으며⁷⁾ 高麗를 거쳐서 朝鮮朝에 이르는 동안 繼續되었거늘 어찌하여 同一한 叔姪間의 政權싸움이 高麗에도 있었는데 獻宗時에는 復位圖謀가 없었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高麗 15代王 肅宗(在位 1095~1105)은 그의 姪인 獻宗의 王位를 讓受 받은 임금으로서 好學愛書하고 經史에 博通한 것이 世祖와 비슷하다.⁸⁾ 獻宗은 在位 1年(1095)이었고 端宗의 在位는 2年(1453~1454)이었다. 兩件을 比較할 때 첫째는, 肅宗과 世祖가 處했던 時代의 文化背景의 差異가 注目된다.

高麗太祖는 治國을 政誠와 誠百寮書로 根本을 삼았으며 訓要十條

7) 立太學教育子弟. (三國史記, 高句麗條)

8) 國史大觀, p. 213, 李丙焄著, 普文閣, 1955.

를 治家의 原理로 하여 嫡子嫡孫의 繼承을 原則으로 하되 元子가 不肖할 때에는 次子, 次子가 不敏하면 그 兄弟中에서 選擇하게 하는, 儒佛이 共存하는 時代에 肅宗이 處했었던데 比해서, 李太祖가 儒敎立國으로 鄭道傳의 排佛政策과 아울러 朱子家禮에 따라 禮俗이 强要되는 儒敎獨存의 社會로 轉換된 後에 處했던 것이 世祖였다.

둘째는 安珦의 程朱學 導入으로부터 肅宗就位는 148年 前의 일이며 世祖의 執權은 211年 後의 일이니, 獻宗과 端宗은 新儒學이 들어오기 前과 後의 時期로 區別된다. 三隱의 生存期間이 1328년부터 1396년에 이르는 68年이라고 할때 이 期間은 安珦 後 85年의 일이며 端宗은 126年 後의 일이라는 點을 注意하게 된다. 이것은 新儒學導入 後의 距離를 意味한다.

셋째는 世宗의 治績이 컸음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自主意識은 檀君을 國家祀典에 始祖로 祭祀드리게 하고 高麗史를 편찬하게 하였으며 「한글」을 創制하고 五禮儀, 三綱行實 등을 펴서 綱常을 든든히 하는데 致力하였다. 더우기 死六臣들로서는 世宗으로부터 元孫(端宗)을 補佐하라는 命托⁹⁾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살아서는 不義의 權勢와 妥協하지 않은 채 保命했거나, 生命을 걸고 抗拒하다가 犧牲되어 간 儒者들에게는 生死間에 굳게 지켜간 것이 있음에 想到하게 된다.

圃隱은 麗朝와 朝鮮朝의 건틀목에서 抑佛崇儒의 方向을 가지고

9) 朝鮮儒學史, p. 40, 玄相允著, 民衆書館, 1949.

이 나라의 理學을 열어 준 분이요, 그의 丹心歌¹⁰⁾가 傳해 주듯이 그의 思想은 赤誠으로 具現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圃隱과 死六臣은 비록 意圖는 挫折되었지만은 뒷날의 士林들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 壬辰倭亂을 겪을 때 降伏을 拒絕하면서 東萊城을 死守한 宋象賢(1551~1592)은 父母의 恩惠는 오히려 君臣의 義보다 가깝다고¹¹⁾ 읊어 陳中詩를 父親께 發信한 일도 있다. 丙子胡亂 時에 金尙憲(1570~1652)은 淸의 無道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反淸代表로 押送된 三學士도 또한 끝까지 意思를 굽히지 않았다. 韓日合邦期の 崔益鉉(1833~1906)은 倭人 앞에 生을 拒否하였으며 柳麟錫(1842~1915)은 義兵의 都總帥로 終生하였다. 前朝를 지키려던 圃隱과 死六臣은 宗統守護의 對內問題에 一命을 바친데 比해서 壬辰, 丙子와 韓末合邦期の 義士들은 國權守護의 國際問題 앞에 終生한 것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宗統과 國家主權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生死를 걸었다는 데 共通點이 發見된다. 이제 節義思想의 理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儒者는 元來 司徒之官으로부터 나왔고 그들은 人君을 도와 自然에 順應하고 教化를 밝히는 사람들로서 六藝 中에 特히 仁義에 뜻을 두었으며 孔子를 宗師로 하되 그 系譜를 堯舜文武로 삼고

10) 此身死了死了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魂魄也無, 向主一片丹心寧有改理歟. (麗季名賢集 圃隱文集續錄卷1, p.1090, 大東文化研究院, 1959.)

11) 孤城月暈, 列鎮高枕, 君臣義重, 父子恩輕.

있다.¹²⁾ 子思와 孟子 以後에 程子로 繼承된¹³⁾ 儒統은 朱子에 依하여 宋代의 新儒學을 大成하기에 이르렀다. 孔子는 仁을 가르쳤고 君子에 있어서는 義가 重視되어야 함¹⁴⁾을 말하였다. 孟子는 梁惠王에게 대하여 仁義를 強調¹⁵⁾하였고 朱子の 政治哲學은 王霸를 明分하는데¹⁶⁾ 있었다. 이러한 仁과 義는 認識뿐만 아니라 生死를 決判할 수 있는 價值基準으로서 行爲根據가 되고 있다는 點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生死歧路에서의 順安한 行動姿勢에는 不動의 主體가 要求된다. 여기에는 迷惑이 없어야 할 것이다. 生과 死가 分裂되는 데서 發生되는 惑을 孔子는 子張에게 일러주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라니 살기를 바라고 또 죽기를 바라는 일은 그것이 바로 惑이다」¹⁷⁾

라는 이 말은 主體가 生이나 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爲해서 살며 무엇을 爲해서 죽느냐에 있음을 示唆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生死義理에 관해서 일찌기

12) 儒家者流蓋出於司徒之官，助人君順陰陽明教化者也。游文於六藝之中，留意於仁義之際，祖述堯舜，憲章文武，宗師仲尼。（漢書藝文志）

13) 河南程氏兩夫子出而有以接乎孟氏之傳。（朱子大學序文）

14) 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論語，里仁 16）

15) 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孟子，梁惠王章句上）

16) 朱子以爲吾人不當只論其「盡與不盡」更當論其「所以盡與不盡」基「所以盡與不盡」即王霸之所由分也。（中國哲學史，p.923，憑友蘭著.）

17) 愛之欲其生，惡之欲其死，既欲其生，又欲其死，是惑也。（論語，顏淵 10.）

「生도 또한 바라는 바요, 義도 또한 바라는 바이나 둘을
兼해서 充足시키지 못할 때는 生을 버리고 義를 取하겠노
라」¹⁸⁾

라고 하여 孟子는 不義는 死보다도 더 미워함을 말하고 있다.

朱子는 義와 利害問題의 明辨을 儒學의 本領¹⁹⁾으로 생각하였다.
義는 麗末 以後 朱子學 導入 以來 政治社會에서 倫理의 重要問題
로 擡頭되었다.

安珦은 聖人의 道를 國子諸生에게 孝·忠·禮·信·敬·誠으로 가
르쳤다.²⁰⁾ 圃隱 鄭夢周는 儒者의 道를 日用平常之事라고 하면서 堯
舜의 道를 尊重하였고²¹⁾, 牧隱 李穡은 君臣의 道에 있어서 나라가
달라지고 君이 달라졌는데 立朝할 수 없음을²²⁾ 일찌기 말하고 있
다. 吉再는 太宗의 召命에 대하여 不仕二姓의 뜻을 밝히고서 應
하지 않았다.²³⁾ 成三問은 世祖 앞에서 「하늘에 二日이 없고 百姓

18)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金生而取義者也. (孟子, 告子上, 10)

19) 義利之說乃儒者第一義也. (朱子答上延平先生)

20) 聖人之道不過日用倫理, 爲子當孝, 爲臣當忠, 禮以制家, 信以交朋, 修己必敬, 立事必誠而已. (朝鮮陞庶諸賢文選, 安珦, 論國子諸生文, p.9.)

21) 儒者之道皆日用平常之事, 飲食男女人所同也, 至理存焉, 堯舜之道亦不外此, 動靜語默之得其正即是堯舜之道, 初非甚高難行. (麗季名賢集, 圃隱文集續錄, p.1091, 大東文化研究院, 1959)

22) 臣所事謂之君, 君所使謂之臣, 生于楚而用于晉, 是不可以國分也. 倭於隋而忠於唐, 是不可以人別也. (高麗名賢集 3, 牧隱文藁, p.870, 直說三篇)

23) 臣無二主, 乞放歸田里終養老母以遂臣不事二姓之志. (高麗名賢集 4, 冶隱言行拾遺, 三綱行實, p.491, 大東文化研究院, 1973)

에게 二主가 없다」고 하여 그의 周公으로 自處했음을 攻駁하였고²⁴⁾ 寒暄堂 金宏弼은 儒者의 道를 五倫으로 말하면서 그의 行實에 있어서 服仁守義를 高調하였다.²⁵⁾ 靜庵 趙光祖는 獄中에서 疏를 올려 「吾君으로 하여금 堯舜과 같은 聖君이 되게끔 盡力한 것 뿐이요 또한 이 일은 太陽이 밝게 비치고 있으니 다른 邪心이 나에게 없다」²⁶⁾는 心衷을 밝혔고 臨終에 愛國忠君의 五言律詩를 남기기도 하였다.²⁷⁾

위와 같은 義士들의 思想이 오늘에 果然 어떠한 意味를 주는가를 다음에 考察해 본다.

4

위에서 말한 여러 義人들의 行動은 宗統을 지키는 일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天無二日이란 말도 그러한 뜻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社會란 構造的인 意味에서 人間의 關係體系라고 할 수 있다면 모든 問題는 人間으로 求心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現代社會의 特徵을 보는 角度따라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이나, 한

24) 朝鮮儒學史, p. 42, 玄相允著.

25) 儒之爲道不過曰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其文詩書易春秋, 其法禮樂刑政, 其行守義, 其爲道易明而其爲教易行也. (韓鮮陸廡諸賢文選, 第五編)

26) 使吾君爲堯舜之君, 茲豈爲身謀, 天日照無他邪心. (李朝初葉名賢集選, 靜庵集, 獄中聯名疏, p. 24, 大東文化研究院, 1959.)

27) 愛君如愛父, 憂國如憂家, 白日臨下土, 昭昭照丹衷. (朝鮮陸廡諸賢文選, 第 5 編, p. 18, 12 行)

마더로 「動搖」라고指摘하고 싶다. 個人的으로는主體가, 國家社會로는主權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個人的 自殺事件이 늘어가고 있으며 春秋戰國時代에²⁸⁾ 못지 않은 오늘의 世界는²⁹⁾ 端的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甚至於是 聖職者가 自殺을 하고 敎皇마저도 被擊을 당하는 現實이고 보면 무엇이 主가 되며 무엇이 從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自省하게 되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卽 最高善의 定立은 時急한 問題로 登場된다.

적어도 國家社會를 領導한 君主가 國民生活의 安定과 幸福을 定着시키는 私人이 아니라 公格者로서의 眞理實現의 使者라면, 그 聖業遂行에 獻身한 人士들의 忠節은 높은 價値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 같은 人間이기에 一面 私格을 가졌고 眞理의 形象體로서 一面 公格을 아울러 지닌 것이 父와 君의 아이로니— 한 兩面이라고 할 때 孝와 忠에 있어서 盲從과 孝子·私臣과 忠臣의 갈래 길이 생기게 마련이다. 眞理의 普遍機能이 構造的으로 가까이는 家庭의 和睦이요, 멀리는 人類의 平和라고 한다면 그 機能의

28) 春秋時代의 諸侯被殺件數

夫れ春秋は242年の紀なり……日食凡そ36, 君を弑するもの36, 國を滅するもの52…(春秋左氏傳上 解題 p.9. 國民文庫刊行會, 鶴田久作 1921)

- 29) 近 100 年間の 元首, 指導者級人士 被擊件數 1) 사다트埃及大統領被擊 81.10. 2) 이란大統領被擊 81.8. 3) 朴正熙大統領被擊, 79. 4) 캐네디大統領被擊 63.11. 5) 쿠바 루뭉바被擊 61. 6) 콩고首相被擊 61.2. 7) 日社會党首被擊 60. 8) 잔디被擊 48.1 9) 폴투갈 칼르루시王暗殺 1908.2 10) 프랑스國王被擊 1905.6. 11) 스페인王被擊 1905.6. 12) 세르비아王과 王后被擊 1903.6. 13) 美 매킨리大統領暗殺 1901.9. 14) 이태리 움베르트王被擊 1900.7. 15) 프랑스 카르노大統領暗殺 1894.6. 16) 토르쓰키暗殺 1940.

端初를 孝와 忠에서 發見할 수 있을 것 같다. 勿論 相對的 關係에서 一方通行의 孝·忠이 아니라 父慈子孝의 孝³⁰⁾며, 君使臣以禮하고 臣事君以忠³¹⁾하는 忠임을 注意해야 할 줄 안다. 여기서 父子와 君臣의 兩者間의 共約되는 義의 價値가 實現되며 이 義는 또한 오늘의 利益社會에서 外面되지 않은 利를 가져다 주는, 眞正한 意味의 利로서, 生産이 可能해지리라고 믿는다.³²⁾ 宗統의 機能的인 意味가 個人的 主體에서, 그리고 國家의 主權에서 理解될 때, 現代의 「動搖」를 가라앉히는 鎮定劑가 무엇인가를 求하고 있는 오늘에서, 우리의 先人들의 節介와 義理에 現代의 意味賦與가 可能해질 것이다. 生老病死가 人生公路라고 하지만 好生惡死 또한 人之常情이고 보면 生生에 方向에서 生死事實에서가 아니라 根據로서의 義로부터 生死의 意味를 찾은 그들의 지녔던 共如한 思想을 엿보게 한다. 個人的 心身이 個人的 獨所有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 몸을 所重히 하고 마음가짐을 맑게 하려는 샘(泉)이 始作된다고 본다. 여기서 비로소 現實的으로 肉身의 來源인 父母를 생각하게 되며 마음의 向路를 爲하여 聖賢을 높이는 出發이 可能해지리라고 믿는다.

30)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止於仁, 爲人臣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大學傳三章)

31)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如之何, 孔子對曰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論語, 八佾 19)

32) 文言曰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易乾文言)